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봉우 컬럼

## 부활의 신앙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망한 집을 사고, 망한 기업을 인수하라고 한다. 내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확신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살아나고, 망한 기업도 회생된다는 것을. 이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지 않은가. 내 말에 코웃음을 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마르다가 그랬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 오셨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한탄하는 마르다를 보시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한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이다”(요11:24). 마르다에게 있어 부활은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국한되어 있었다. 종말론적인 부활이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부활(復活), 죽음 다음에 다시 사는 영의 부활과 함께 삶에서의 부활도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은 것, 꼬부라진 것, 망한 것들이 되살아났듯이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죽은 가정, 죽은 기업과 죽은 심령이 살아나야 하고, 병든 교회와 병든 사회가 나음을 입어야 한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말한다.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죽으심도 헛되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다.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신앙과 삶의 부활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 환경을 바꿨으면 생각을 바꿔라

지난 3월 31일, 배방예수중심교회가 이 전에배를 드렸다. 단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도 지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로 성전은 가득했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환경을 바꿨으면 생각을 바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새 집에 이사 왔다고 다가 아닙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밤에 그 반찬인 겁니다. 배방교회 담임의 본명은 임기순입니다. 임기순이 주의 종이 되면서 임택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이름만 바꿨다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임기순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

룹에서의 생각, 기질,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에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으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됩니까? 가족을 벗기는 변화입니다. 대변혁입니다. 대충 웃이나 바꿔 입는 변화가 아니라 속까지 썩 다 바뀌어야 합니다. 사물이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교회 옆 사택에서 생활하던 목사님 내외가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목사님은 화장실에 있던 낯요강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낯요강은 잠시 후 교회를 두루 살피던

만, 밥이 잘 비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참기름이지요. 기존 성도들이 참기름처럼 고소하고 서로 연합하게 한다면 배방교회는 정말 맛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기름이 그냥 됩니까? 여러 번 씻어내고, 뜨거운 불에 볶고, 압축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정제하고, 나를 눌러 희생할 때 참기름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배방교회의 꿈은 뿌리는 임 목사지만, 영양분을 끌어오는 잔뿌리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일꾼 중의 으뜸은 학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임 목사



배방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2015. 3. 31)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릉교회와 캐나다, 미국 교회를 두루 거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오늘날 배방예수중심교회를 일꾼 것입니다. 아랍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아랍의 기질, 생각, 습성을 다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분에서 키우던 영산홍이 커져서 마당에 옮겨 심었는데 쑥쑥 자랄 줄 알았던 영산홍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캐보니 여전히 뿌리가 화분모양으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원예사에게 물어보니 돌돌 말린 뿌리 끝을 잘라줘야 자란다고 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뿌리가 예전 화분모양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애

한 대장장이 장로의 눈에 뜨였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의 생신이 되어 사택에 온 장로는 목사님께 보자기에 찬 낯그릇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 귀한 것을 보고 반색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이 근처에서 낯요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련해서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 내외는 낮이 붉어졌습니다. 그럼요, 이것이 혁신입니다. 삼성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는 혁신 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나는 배방교회 성도들이 참기름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기름은 비빔밥에 들어가면 냄새도 구수하지

가 사람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깨닫고 실천한다면 이사야서 43장의 복이 임 목사와 배방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다. 남미에 가면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자도 있다. 그러나 고난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생각,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벗겨버리는 혁신을 통해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필리핀 세부 집회 4월 13일(월) ~ 18일(토)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2:39~26)



#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은 고철입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며, 총알이 없는 총은 총이 아니고, 돈이 없는 지갑도 지갑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일진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삼상12:23).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죄목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무능하고 죽은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자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왕상17:1). 온 천하가 가뭄으로 불타았습니다. 3년 반이 흘렀을 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천국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으로써 먼저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해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매든지 풀든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부지런히 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출15:25).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만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살전5:17),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엡6:18). 그렇다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기업에 수출이 막힌 것,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이 실타래 엉키듯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다 니 엘리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

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이고(단6:18~23),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적극 협조한 것입니다(느1:4~2:8). 엘리야의 첫 부인인 한나는 브닌나로부터 조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 다. 언제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키셨는가 하면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면서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리야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삼상1:10~1:19).

저는 해외집회에 가면 보통 하루 7시간씩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에 올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살전5:19). 그런데 성령 소

멸을 시키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전혀 기도 에 힘썼습니다. 이는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행1:4~5). 그들이 전혀 기도 하매 오순절 날 성령이 바람 같이 불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기름 값 생각해서 보일러를 틀었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 끄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용 장로가 하는 말이 보일러를 일정온도에 맞춰

놓는 것이 기름이 덜 들고 집도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보일러

를

끄 면 물을 데우는데 기름

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다시 충만케 하려면 힘이 더 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기도의 독이 차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냐’ 하시며 즉시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라’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그건 안 된다’고도 하십니다. 혹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삼상1:11,20), 하스기야의 기도(왕하20:1~11), 에스더의 기도(에4:8)가 오냐 하신 경우이고, 나사로의 죽음(요11:1~44), 엘리야의 기도(왕상18:1,41~46), 가나안 약속, 바벨론 포로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신 경우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그랬 습니다(고후12:1~10). 또한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죽을병을 고쳐달라는 다윗의 기도 에 그랬 습니다(삼하7).

솔로몬의 기도에는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왕상3:1~15).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무관하실 뿐 아니라 멸절시킨다고 까지 하

##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셨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슥1:7). 그래서 기도가 끝난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 하였고,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분은 절대 식언치 않으시며, 한 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약속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분이기에 이 약속은 파기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고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형통의 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렘33:3). 때로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십시오(마6:6).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시126:5), 감사로 기도하십시오(빌4:6).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마18:19).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화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할렐루야!

##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다

뒤에서 잡으러 오고 앞은 홍해로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부짖고 통탄하고 탄식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출14:15~16).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것을 물에

###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 술 마시는 크리스천

몇 달 전,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식사가 있었다. 늘 그렇듯 그 자리엔 술이 빠지지 않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예 주지 않지만, 그날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서 내 잔에 술을 따라 주려 하셨다. 나는 조용히 거절을 했다.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자주 받는 유혹은 아마도 술이 아닐까 싶다. 때론 권유로 때론 협박에 가깝게 그 유혹은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말들은 신기하게도 항상 똑같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은 다 마시는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교회 밖에서 만난 크리스천들은 백이면 구십구가 다 그랬다. 술 한잔 마시는 거, 그냥 보면 별 거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데는 큰 가치가 숨겨져 있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보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연이나 금주를 계획하곤 한다. 그러나 남자들 중에선 성공한 사람을 본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여자들 중에선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끊는 경우를 종종 봤다. 광고라는 업종 때문인지 회사엔 여자 흡연자와 애주가들이 꽤 많은데, 그녀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 그리고 커피까지 하루 아침에 끊은 것이었다. 남자보다 의지가 강해서도 유별나게 독해서도 아니었다.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었던 그녀들이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만 이 아니라 아이가 함께 있다는 걸 알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걷고 바쁜 시간 쪼개 요가까지 다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르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크리스천이 술과 담배 그리고 음란을 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도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죄악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술 한잔도 조용히 거절하는 것이다. 내 몸이 이제는 내 것만 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렇게 조용히 시인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건 쉽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이를 가진 여자가 변화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건 너무 쉬운 신앙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 보여줘 보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목사님, 부족한 제 남편을 귀한 단에 세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년 전 결혼식을 마치고 목사님께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좁고, 가시밭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와 결혼하더니, 홀로 쌍둥이를 키우고 힘들게 생계를 꾸어지며 살아가는 저를 답답하고 속상하게 보신 친정아버지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게 두들겨 맞고, 머리털이 뽑혀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 목사 곁에 있으려 했을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낭떠러지 위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을 큰 대야를 들고 신 목사님과 함께 뛰어가는데 제가 너무 힘이 겨워 주저앉자 앞에 뛰어가던 신 목사가 뒤돌아보다 그만 하염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마음을 돌이키며, 신 목사에게 “나와 쌍둥이는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받아달라고 애원하여 쌍둥이와 친정집에 다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랑하는 목사님께!

그런 일이 있은 후 목사님께서 제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앞으로 네 남편을 사회를 보는 자리에 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저와 쌍둥이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꿈속까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평범함을 그리워하며,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동경했지만, 하나님께서 신 목사와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며, 신 목사 목회에 저와 쌍둥이가 장애가 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목사 아내의 자격조차도 없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적 없는 훈련은 없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완강하셨던 아버지께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더니 목사인 사위를 누구보다 더 아끼고 진심으로 저희 가정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십니다.

목사님! 부족한 제 남편을 아껴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시며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항상 보충하세요.

신현명 목사 아내 국유미 올림

::Messages for Today::

## 한반도의 부활

1884년 갑신정변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조선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에 ‘소망 없는 은둔의 땅’, 곧 죽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Rev. Horace Grant Underwood)와 아펜젤러(Rev. Henry Gerhard Appenzeller)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이들은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구에 도착합니다. 당시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보고서에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

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들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불잡아 뜯겨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

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일어 큰 불이 되었고, 한반도에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복음의 불을 전 세계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선교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이 불길기 다시 훨훨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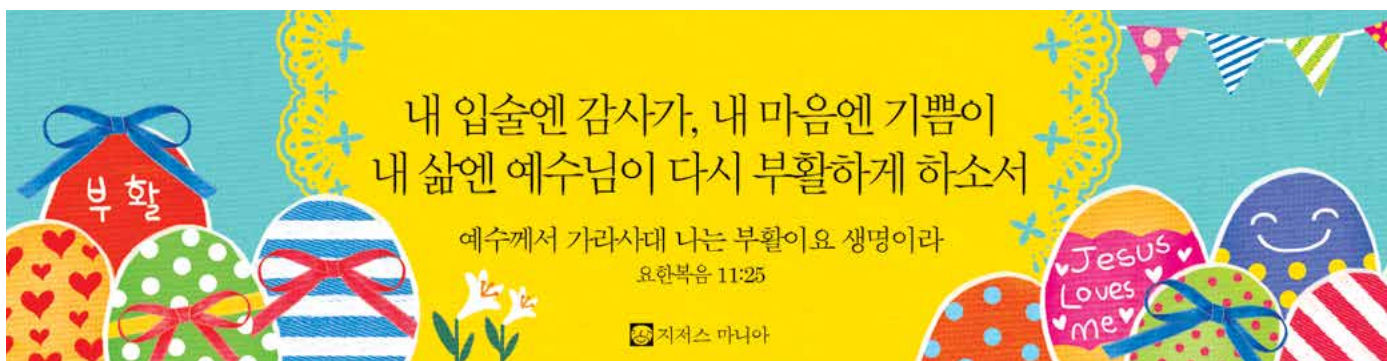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창구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자잘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일을 배우던 시기였는데, 하루는 한 남자 손님이 아직 제가 완벽하게 숙달하지 못한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가 배운 대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업무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 있지요. 간단한 업무 처리가 늦어지자 화가 난 그 손님은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여직원들과 안에 계시던 지점장님까지 출동하셔서 손님의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과 서러움이 겹치니까 눈물까지 나더군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곤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무능해서 욕을 먹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는 그렇게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든데, 하물며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그 분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괴로움과 슬픔을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주의 종이 된 지금도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날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범죄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십자가에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31일, 입당예배를 드린  
배방예수중심교회 임택함 목사님과의 인터뷰의 전문입니다

주 순조롭고 어려움 없이 인도 해주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배방교회 성도님들과 기도한 것 밖에 없습니다.

기자: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임 목사: 교회 부지는 1,300평이 좀 넘고요. 건평은 135평에 교육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전 성전과는 다르게 방해되는 것이 없어 얼마든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송을 드려도 문제될 것이 없어 좋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장년부는 족구도 할 수 있고, 바비큐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채도 조별로 심어 키우고,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어 좋습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임 목사: 하나님과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우리교단 명이 예수중심교단입니다. 목회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도록 하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목회 하느냐입니다. 옛날 학창시절에 컴퍼스로 원을 그리던 기억이 납니다. 원을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중심에 핀만 고정되면 그 원은 언제나 똑바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흐트러지면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 아무리 똑바로 그리려 해도 그 원은 비뚤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목회를 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자: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임 목사: 목회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한 것 없이 세월을 보낸 것 같아 하나님께 송구할 뿐입니다. 당시 한국에루살렘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루살렘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집회에 오게 됐고,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보니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기자: 배방교회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인수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임 목사: 배방교회를 개척한지 6년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는 식당과 붙어있어서 예배 때 시끄럽다는 식당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아

기자: 총회장 목사님께 평소 드리고픈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주세요.

임 목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께서 앞으로 30년을 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뛰시는데, 건강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깨진 그릇은 쓸 수 없으니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기도로 도울 겁니다. 목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기자: 배방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임 목사: 우리 배방교회는 교회를 통해 꾸어야 할 3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시42:1~2). 두 번째 꿈은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잠11:24~25). 세 번째 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계22:20). 우리의 꿈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날에 천국가는 것 뿐 아니라 주님께 받을 상과 왕권을 바라보는 꿈입니다.

기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배방교회가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교회에 입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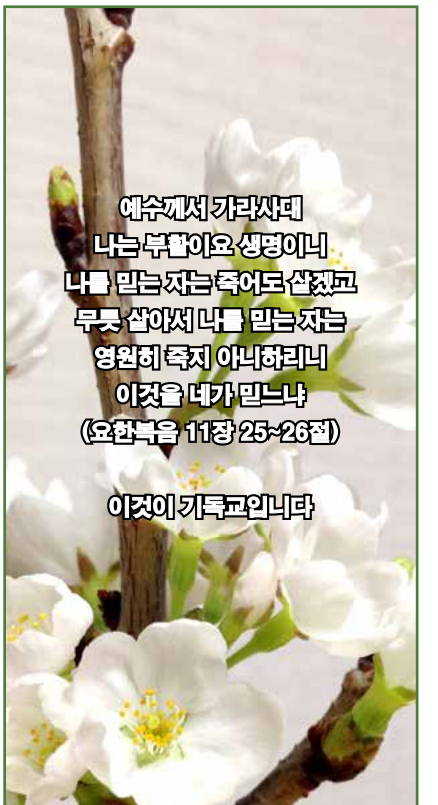
# 기쁜 부활절!

인류 역사 6천년의 많은 날들 중 가장 슬픈 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던 날이며, 또한 인류역사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기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

공자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의 무덤을 자랑하고, 마호메트의 제자들이 자기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할 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권세와 사망권세를 이기셨으며 주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 감히 이 부활의 위력을 막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은 약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활절을 기념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곳곳에 꽃망울이 터지는 시점에 축복의 날, 부활절이 있다. 이런 복된 날 속에서 유독 머리를 땀도는 성경구절이 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사65:17). 어찌나 감사한 말씀인지 생각할수록 기쁨의 눈물이 절로 흘러 내리는 요즘이다. 그 이유는 둘도 없는 내 친구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 지난 추석,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참석한 이후로 그 친구는 간간히 주일예배는 물론 신년축복성회와 금요일예배에도 가끔 참석을 했었다. 나는 '때가 되면 친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어떤 권유나 강권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친구는 매주일 아침이면 으레 교회가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친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는지, 성령은 받았는지 물

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지만 난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한숨을 쉬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속상하네." 나는 그 말에 내심 기쁘면서도 정말 놀랐다. 친구의 표정에서 진실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지난 시간을 반추(反芻)하며 자책하는 친구를 빨리 위로해야 했다. 그러나 난 적당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 채, 다만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시간에 더욱 힘쓰면 될 것이라며 얼버무리고 말았다.

친구의 자책에 알맞은 위로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가하던 중, 문득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다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향

할 것이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복 중의 복이 아닐까. 평생 듣지 못하는 이도 있고, 들어도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해 이를 기뻐하는 이도 수도룩한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은혜의 때를 맞은 친구가 복된 지일진대 후회는 가당치 않은 것이 아닐까.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난 꼭 친구에게 이 기쁨의 말씀을 전하리라 다짐해본다. 지금, 그 친구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자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8~19)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전훈지  
ppjee@hanmail.net